

'남원의 숨결, 민화로 피어나다'

'김중숙 작가 초대전' 4월 1~30일 남원 예가람 전시관서 개최

남원의 역사와 전설을 전통 민화로 풀어낸 김중숙 작가의 초대 개인전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남원 예가람 전시관에서 열린다.

'남원의 숨결, 민화로 피어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 민화의 맥을 잇는 동시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대중과 소통해 온 김중숙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전시 작품들은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 온 민화 특유의 해학성과 따뜻한 미학을 바탕으로 남원 지역 곳곳에 담긴 이야기와 정서를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의 대표작으로는 보절명 용호 저수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주목된다.

하늘로 승천하는 용과 산을 지키는 호랑이의 모습을 통해 지역의 상징성과 자연의 기운을 동시에 표현했으며, 섬세한 필치와 강렬한 색채가 어우러져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 작가의 작품은 전통 민화의 도상적 가치

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인이 바라는 '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 풍경과 설화를 접목한 화면 구성은 관람객들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함께 새로운 예술적 감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예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중숙 작가는 지난 20여 년간 전시 수익금을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금으로 기부해 왔으며, 이번 전시 역시 그 뜻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작가는 "민화는 서민의 삶과 소망을 담은 가장 인간적인 그림"이라며 "작품을 통해 위로가 전해지고, 그 수익이 다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뜻한 봄날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전통 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문화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기자



김중숙 작가 '파도를 넘는 푸른 꿈'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6부 '굿패와 수녀' (6)

아이가 전염될 수 있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남준은 주저앉았다. 이곳까지 먼 길을 걸어온 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절망이 남준의 몸과 마음을 무너지게 했다.

선운산에서 돌아온 남준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사는 것 자체마저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포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동해원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온 운명을 다양한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내고 있었다.

병을 이겨내고 병에서 탈출하려는 자, 자신을 포기하는 자 또는 천형으로 받아들이고 이대로의 삶을 영위하려는 자 등 각자의 성격에 따라 자신들의 현재를 달려가고 있었다.

누구도 각자가 택한 삶의 형태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생을 포기한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없었다.

좋은 치료방법이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었다. 다들 껌껌한 밤바다에 떠 있는 배에 승선한 채 어딘가에서 반짝일 희망의 등대불을 찾고 있었다고 할까.

남준도 그들처럼 그렇게 미래도 없고 희망 없는 그러나 희망이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의 등대불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다. 주위된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으로 나름의 지혜를 치루고 있었다.

남준이 동해원에 들어오던 이전 해에 공소가 생겼다. 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천주교 예배소다. 몇몇 사람들은 공소에 가서 예배를 보고 신부나 수녀의 모습을 보며 신앙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소에는 수녀들이 상주했는데 그녀들은 동해원 주민들에게 매우 현신적이었다. 그녀들은 애초부터 이곳이 나환자촌이라는 걸 알고 들어왔기에 그만큼 마음가짐도 달라서 다른 일반인들과는 나병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달랐다.

남준은 공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의 신앙인은 되지 않았지만 가끔 수녀들의 헌신을 목격하는 때가 있었다.

관에서는 정착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조건으로 몇 십 평의 땅을 불하해줬다. 사람들은 축사를 만들고 닭과 돼지를 키웠다. 물론 관에서 권장한 일이었다. 산비탈을 개간해서 옥수수나 조, 보리를 재배했다.

그 사이 남준과 같이 지내던 김동철은 같은 부락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여자와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살게 되었다. 혼인식도 없이 살림을 차렸는데 여자는 이미 혼인을 했으나 나병이 발병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였다.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건강했다.

"안돼요! 안된다고요! 왜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나요!"

보건소 직원들이 들이닥쳐 김동철의 간난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여자는 아이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여기에 있으면 아이가 전염될 수 있어! 그래서 데려가는 거야!"

"당신들이 뭘 보태줬다고 내 얘기를 데려가려는 거야!"

밖에서 일하다 집이 소란스러운 것을 감지한 김동철이 뛰어들어 보건소 직원들에게 대항했다.

"여기 있으면 아이가 병에 전염될 수 있잖아! 전염되면 좋겠어!"

저항하던 손을 김동철은 힘없이 툭 떨어뜨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가 자신처럼 문둥이가 되면 안 되지 않는가. 그 걸 방지하기 위해 데려간다는데 어떻게 막겠는가.

"아이고 안돼요! 안돼! 아암아암!"

같은 부락 주민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렸지만 보건소 직원들의 행태를 막지는 못했다. 슬픈 눈물로 김동철 내외를 쳐다볼 뿐이었다.

"저 사람들이 데려다가 잘 키울 거예요. 너무 낙심 마세요. 하느님께서 아이의 앞길을 잘 인도해주실 거예요."

소식을 듣고 내려온 수녀가 김동철 아내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김동철 내외는 언제부턴가 공소에 나가고 있었다. 그제들은 희망의 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았다' 청년 작가 작품 전시

'무주군 최북미술관 기획전' 내달 30일까지 개최... 귀향·이주 작가 시선 담아

무주군 최북미술관이 기획전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았다'를 개최하며 지역 기반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3월 19일 시작돼 오는 4월 30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전북으로 귀향하거나 이주·귀촌한 김상덕, 최은우, 하태훈, 미노리, 김시오 작가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회화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그룹 '뉴 중앙' 소속으로, 신예·청년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출품작은 '새시대 환상 신화', '이미 일어난 일 III', '경계에 선 사람들' 등으로 구성돼 각기 다른 해석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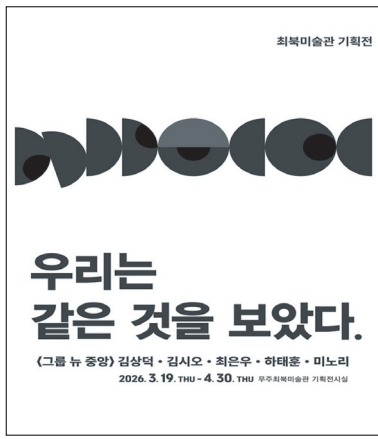
김상덕 작가는 '유물: 관'을 통해 무너진 세계의 잔해를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최은우 작가는 '경계에 선 사람들'을 통해 불안과 두려움, 불완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하태훈 작가는 '사소조망' 시리즈에서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시선을 결합해 세계의 연결성을 드러냈다.

미노리 작가는 '고양이'를 소재로 변화와 비가역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김시오 작가는 'From near and far I' 등을 통해 상실의 의미를 시간과 사물로 확장해 표현했다.

/우주=손흥기기자



전주시 어진박물관, '왕실문화클래스' 운영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오는 4월부터 대표 프로그램인 '왕실문화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왕실문화클래스'는 실제 왕실 문화유산에 사용된 공예 기법이나, 왕실 속 생활 문화를 활용해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일 체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운영되는 주제는 △왕실 의물(나전 장식품 만들기) △왕실 인장(나만의 전갈 만들기) △왕실 화장(면약·수분크림, 조두·스크럽 만들기) △왕실 장식화(모란도 그리기)로 구성돼 있다.

교육은 오는 4월과 5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운영되며, 강사진으로

는 지역 공예작가들이 참여한다.

교육 참여는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회차별 2주 전부터 어진박물관 누리집 내 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하재식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왕실문화를 어진박물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에 더 친숙해지고,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